



서구-닥터스피부와 상무점, 후원금 전달식

광주 서구는 지난 17일 닥터스피부와 광주상무점과 함께 서구 지역 돌봄이웃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닥터스피부와 광주상무점은 서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 60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후원금은 향후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혜린 원장은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행복한 복지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가자



북부경찰, 연제초교서 '교통안전 골든벨'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7일 북구 연제초등학교에서 '제5회 도전! 어린이 교통생활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등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린 이날 안전골든벨에는 연제초 5학년 재학생 176명이 참여해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에 대한 OX 퀴즈와 주관식 문제를 출제해 우승자를 가렸다. 북부경찰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안전골든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말 학교 대표 20명을 선발해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현 북부경찰 교통과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서부소방, 광주김치축제 소방안전 체험부스 큰 호응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18일 제31회 광주 김치축제에서 소방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 부스는 김치축제 기간인 3일동안 운영하며 심폐소생술(CPR), 완강기 사용법 및 실제 하강 연습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됐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용소방대 10명이 전문적으로 진행했으며, 재난 대응과정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9명이 함께 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직접 소방안전 체험에 참여하면서 큰 흥미를 보였으며, 심폐소생술과 완강기 사용법을 실습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희철서부소방서장은 "행사장에서 다양한 소방체험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소방정책 홍보를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상이가자



공군 제1전비·국군함평병원, 의무지원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지난 17일 국군함평병원과 합동 대량전상자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의 공습 시 신속한 후송과 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화생방 테러 상황으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훈련은 상황 부여 후 1전비 항의대대와 국군함평병원 대원들이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이어 제독지원반이 제독을 시행, 국군함평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세연 국군함평병원 대위는 "함평병원 소속 장병들이 접하기 힘든 비행단 특성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작년보다 보완·발전된 훈련을 통해 대량전상자 발생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한 것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환경공단, '올바른 물 사용·절약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외곽 광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물 사용·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20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공단의 1하수처리 직원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방법과 물 절약 실천을 유도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변기에 물티슈와 위생용품 버리지 않기 △양치컵과 설거지통 사용하기 △빨래는 모아서 하기 등 일상 속 물절약 생활 습관을 요청했다. 광주환경공단 김병수 이사장은 "생활습관으로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딸 품에 안은 박수홍 오열 "아빠가 지켜줄게"

코미디언 박수홍(사진)이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20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선 박수홍이 기다리던 딸을 품에 안는 모습이 담긴다. 박수홍은 출산을 앞둔 아내 김다애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한다.

박수홍은 "이제 나 안 울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보랑 전북이(태명)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김다애가 수술실로 들어가자 결국 눈물을 흘린다.

이후 딸이 수술실에서 나오고, 박수홍은 그토록 바라던 첫 만남을 갖는



다. 박수홍은 딸 머리를 받치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뒤 "미치겠다. 애 눈똥다. 아빠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는다.

박수홍은 "전복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엄마한테 외워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한다. 박수홍은 "다에서 덕분에 내 인생의 복덩이를 만났다. 여러분 덕분에이다. 감사하다"며 인사한다.

뉴스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number, property details (address, area, use), and price.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residential units and commercial spaces.